

1 개요

토산일렛당본풀이는 표선면 토산리 본향당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부로못도가 부모에게 죄를 짓고 무쇠상자에 담겨 버려지자 용왕국에 가서 용왕 막내딸을 작은부인으로 맞이하여 되돌아온 뒤에, 돼지털 냄새를 맡는 부정을 탓하며 큰부인을 마라도로 귀양보내니 작은부인이 귀양을 풀라고 하고 직접 찾아가 큰부인의 일곱 아이를 데리고 돌아와 당신으로 좌정하였다.

2 내용

부로못도는 송당본향당 벽주또와 소천국의 아들이었다. 이미 혼인한 상태인데 부모가 죄를 마련하여 부로못도를 무쇠상자에 가두어 바다에 띄워버렸다. 상자는 용왕국 산호수 가지에 걸렸다. 개가 자꾸 짖어가니 요왕국이 세 딸에게 사정을 알아보게 하였으나 막내딸만 제대로 알아보았다. 다시 세 딸에게 상자를 내리라고 하였으나 역시 막내딸만 내려놓을 수 있었다. 세 딸에게 상자를 열라고 하였으나 막내딸만 열 수 있었다. 상자 속에는 고운 도령이 앉아 있었다. 세 딸의 방으로 들라고 하였으나 도령은 막내딸 방으로 들어갔다. 식사를 차려갔으나 거들떠보지도 않으니 무슨 음식을 먹느냐고 물으니 “백메[白飯], 벅돌레 주소지(燒酒) 계알(鷄卵) 안주”를 먹는다고 하였다. 사위 하나 대접 못하겠느냐 생각하고 먹이다 보니 모든 창고가 비어갔다. 할 수 없이 무쇠상자에 사위와 딸을 넣고 바다에 띄워 버렸다.

부로못도는 제주에 이르러 주술로 어머니 눈에 콩깍지가 들게 하였다. 어머니는 세 딸에게 눈에 든 가시를 내어달라고 하였으나 딸들은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하였다. 이때 부로못도 부부가 당도하여, 며느리가 자신이 해드리겠다고 하고 주술 부채로 콩깍지를 내어주었다. 어머니가 며느리의 주술에 감탄하고 콩깍지를 내어준 공을 갚겠노라고 하였다. 며느리는 땅과 물을 조금 나누어달라고 하였다.

이때 큰부인은 시어머니가 작은부인에게 얼마나 많은 땅을 나누어주는지 궁금하여 땅을 돌아보려고 나섰다. 돌아다니다 보니 목이 말라, 돼지발자국에 고인 물을 빨아먹다가 돼지털이 코에 박히니 돼지고기를 먹은 듯하였다. 가장에게 갔더니, 날핏내가 나니 부정하다고 야단치고 마라도로 귀양을 보내버렸다.

작은부인이 그 사실을 알고 큰부인의 귀양을 풀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직접 마라도로

가서 보니 큰부인은 아기 일곱을 낳아 기르고 있었다. 작은부인은 아기를 데리고 대로로 집으로 향하고, 큰부인은 따로 바닷가로 고동 따위를 캐먹으면서 집으로 향하였다.

작은부인은 웃토산[上兎山] 서당팟에 이르러서 확인해보니 아기 하나가 없어 되돌아가 아기를 찾아왔다. 그리고는 서당팟에 좌정하였다.

③ 특징

이 본풀이는 서사맥락이 매우 혼란스럽다. 부로못도가 부모에게 죄를 지어 무쇠상자에 담겨진 것이 이미 큰부인을 아내로 둔 상태였다. 작은부인으로 데려온 용왕국 막내딸이 돼지털 때문에 마라도로 귀양간 큰부인과 일곱 아기를 데려왔다.

마무리가 부실하여 큰부인과 작은부인 가운데 누가 이렛당신이 된 것인지 알기 어려워졌다. ‘큰부인은 서당팟일궤중저라고 하고, 작은부인은 요왕황제국 족은딸아기’라고 한 원문의 서두부를 확인해야 사정이 어찌된 일인지 알 수 있다.

④ 핵심어

부로못도, 송당본향당, 벽주또, 소천국, 용왕국, 막내딸, 큰부인, 작은부인, 서당팟일궤 중저, 요왕황제국 족은딸아기, 산호수, 무쇠상자, 주술, 돼지털, 마라도, 귀양, 토산리, 서당팟, 주술, 콩깍지, 웃토산

⑤ 원전 서지사항

토산일렛당본풀이(현용준·현승환, 《제주도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⑥ 관련 자료

웃당본(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